

주요업종별 동향 및 대외거래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一. 주요업종별 동향

◇ 자동차

96년 12월중 자동차 생산은 업계의 재고부담과 노동관계법 개정 파문에 따른 노사갈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한 224천대에 그쳤다.

內需는 휘발유 소비세의 인상 등 수요억제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회사들의 승용차 무이자 할부판매의 지속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월대비로는 12.2% 증가한 169천대에 달하였다.

수출은 124천대로서 전월대비 10.7%가 감소하여 그 동안의 꾸준한 수출증가세가 한풀 꺾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7.1% 증가하였다. 따라서 12월의 전체 出荷量은 293천대로서 전년동월대비 8.9%의 비교적 안정적 증가율을 보였다.

96년 전체적으로 생산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2,813천대로서 95년도와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1995년도에 보합세에 머물렀던 내수는 무이자 할부제도와 판매사원에 대한 성과급 확대 등 업계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1,644천대로 늘어났다. 수출역시 해외판매망의 확

대와 해외달러에 대한 환축비의 지원강화 및 동남아지역에서의 국민차 지정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3.2% 증가한 1,210천대에 달하였다.

한편, 자동차업계에서도 수출확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독일과 디젤엔진 개발을 위한 기본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승용차의 40%정도가 디젤엔진인 유럽지역으로의 수출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쌍용자동차도 독자적인 엔진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창원공장의 엔진생산능력을 현재의 10만대에서 30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신화정밀은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밸브간격자동조정장치 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대우정밀도 승차감을 높이는 충

자 동 차 (台, %)

	1995. 12월			1996.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235,697	△4.2	14.3	224,236	△16.6	△4.9	2,812,714	11.3
• 出 荷	269,561	25.8	14.4	293,446	1.3	8.9	2,854,289	12.6
(內 需)	179,264	35.4	32.9	169,667	12.2	△5.4	1,644,132	5.7
(輸 出) ^{註1)}	90,297	10.2	△10.3	123,779	△10.7	37.1	1,210,157	23.7

註1) 자동차공업협회자료로 관세청 수출통계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

격흡수장치인 쇼크업소버의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하였다.

◇ 전기·전자

작년 12월중 전자산업의 산업용전자와 가정용전자의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3,951백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 보면 가정용전자의 경우 컬러TV와 냉장고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5.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용전자의 수출은 무선전화기와 컴퓨터의 수출 호조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부품에서는 LCD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비중이 큰 16MD램의 국제현물가격이 6달러선에 머물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3.1%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96년 전자산업의 수출은 반도체가격하락과 엔화에 따른 가정용전자, 산업용전자의 수출 둔화로 전년대비 4.4% 감소한 41,650백만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전자산업의 수출이 감소한 셈이다.

한편 제3국제전화와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등 신규통신 서비스 식별번호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95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였던 16MD램의 가격은 최근 15개월만에 처음으로 개당 2달러 정도 오른 8달러에 거래되는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반도체 3사는 D램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를 계기로 기존 메모리 생산라인을 비메모리제품 생산라인으로 바꾸는 등 비메모리부분에 대한 투

자를 늘리고 있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 국내 전자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TFT-LCD에 대한 국내 3사의 투자가 본격화되어 반도체 장비생산업체도 TFT-LCD 장비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 일반기계

기계류 생산은 96년 12월중 국내 제조업의 기계수주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10%대의 성장을 보였으며, 연간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업계의 수출마케팅 강화의 노력덕분으로 12월중 전년동월대비 27.8%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기준으로는 엔화 지속에 따른 가격 경쟁력약화와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 진정 등으로 전년대비 6.0%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자동화설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12월중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공작기계업체는 97년 국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축소로 내수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유럽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외판매 및 서비스망의 확대 등, 수출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출을 96년보다 최저 20%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대우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는 97년도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20% 증가한 1억 8천만 달러로 정하고 중국에 4개의 Technical Center를 개설하는 한편 중남미, 호주, 인도 등의 시장을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정공 공작기계사업부는 97년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억5천만달러로 정하고 중국 상해에 테크니컬센터를 세우는 한편 호주, 동남

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신규 달러망을 확보하고 지역별 판매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기아중공업 또한 97년 공작기계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51.5% 증가한 5천만달러로 책정하고 중국 북경 및 싱가포르에 A/S센터, 독일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아시아 및 유럽시장 공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철 강

96년 12월에는 그나마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철강시황이 다시 악화되었다. 일기불순의 강추위와 눈으로 건설공사가 지체된데다 현장의 재고가 누적되어 봄철 성수기에 대비한 비축구매도 별로 없었으며 주요 需要산업인 자동차 생산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중 조강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3,361천M/T으로서 96년 들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기로製鋼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1,361천M/T으로서 96년 들어 최고의 생산실적을 나타내면서 조강류의 재고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轉爐製鋼은 2,000천M/T을 생산하여 년초수준을 회복하였다. 96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38,921천M/T의 조강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9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9.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年中 별다른 설비 신·증설이 없었던 전로제강생산은 23,562천 M/T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전기로제강의 경우 활발한 신·증설을 통하여 전년대비 10.5% 증가한 15,359천M/T이 생산되었다.

수출은 12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3.2% 줄어든 521백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96년 전체 수출도 전년대비 17.2%나 감소한 5,998백만달러에 머

문 것으로 추정된다. 96년의 수출부진은 국제철강경기의 부진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한데다 재고의 누적에 따른 업계의 물량위주 수출이 강화되어 수출단가가 내려갔으며, 엔高가 엔低로 바뀌면서 대일 경쟁력이 약화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주철강은 포항공장의 6인치 조관설비를 완공하고 年産 500천M/T규모의 배관용강관 생산설비를 갖추었으며, 한국신철강기술연구소와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고기능성 표면처리강관연속생산 기술인 연속진공증착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의 物理蒸着이나 化學蒸着보다 무공해성인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기능성 표면처리 기술로서 표면처리 강관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5. 12월			1996.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300	1.0	11.5	3,361	3.9	1.9	38,921	5.8
輸 出	538	△10.6	2.9	521	△1.9	△3.2	5,998	△17.2

◇ 석유 화학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을 보면 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基礎溜分の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도품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즉, 국제유가 인상으로 12월중의 국제 나프타가격이 전월에 이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에틸렌, 부타디엔, 벤젠등 기초유분의 가격도 전월에 비해 톤당 10~30달러 상승하였다.

그러나 합성수지, 합성원료 및 합성고무 등 유도품의 경우 중국등 주요 수입국의 계절적 수요감소와 동남아 시장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LDPE, PVC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월에 비해 톤당 20~30달러 하락하였다.

12월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전년동월에 비하여 생산과 출하가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은 전월중 시행된 일부 업체의 공장 정기보수 완료로 전년동월비 10.7%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출하도 전년동월에 비해 9.2%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한편, 연간으로 96년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물량기준으로는 호조를 보여 96년중 생산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10,009천톤으로 최초로 천만톤을 초과하였으며, 내수출하도 전년대비 7.6%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수출도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난 합성원료와 최대 수출품목인 합성수지의 호조로 전년대비 16.4%의 급증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금액기준의 수출은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채산성이 95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석유화학 (千M/T, %)

	1995. 12월			1996.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862	9.9	15.9	954	8.7	10.7	10,009	8.9
· 出 荷	835	3.9	18.3	912	△2.1	9.2	10,025	10.6
(內 需)	519	△3.4	3.8	573	△3.9	10.5	6,429	7.6
(輸 出)	316	18.4	53.4	339	1.2	7.2	3,596	16.4

◇ 비금속 광물

작년 12월중 시멘트 생산은 제조업체들의 무리한 공장가동에 따른 조기시설 보수의 착수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4,906천M/T을 기록하였으며, 내수는 건설공사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한 5,046천M/T을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생산 감소와 내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0.5% 감소한 3만M/T, 수입은

4.7% 증가한 246천M/T을 기록하였다.

년간 시멘트 생산과 내수는 활발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건설활동이 활기를 보여 전년에 비하여 각각 5.1%, 7.4% 증가한 57,924천M/T, 59,709천M/T을 기록하였다. 국내 시멘트 공급부족으로 건설공사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전년에 비해 수출은 24.4% 감소한 759천M/T, 수입은 59.5% 증가한 3,376천M/T을 기록하였다.

쌍용양회는 150억원을 투자하여 전남 영암에 시멘트 유통기지를 준공하였는데, 이 유통기지는 국내 최초로 돛형태의 10천M/T급 시멘트 사일로 2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간 700천M/T의 벌크 및 포장시멘트를 공급할 수 있다. 성신양회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12월 30일자로 시멘트 가격을 7.8% 인상하였는데, 성신양회의 가격인상은 97년에 들어서 다른 시멘트 제조회사들의 연쇄적인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라시멘트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도로보수 등 긴급 공사에 사용되는 고기능 시멘트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시멘트는 기존의 시멘트보다 현저히 낮은 온도에서도 燒成이 가능하고 打設후 2~3시간 뒤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強度로 굳어져 도로보수공사등 시급을 요하는 공사에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千M/T, %)

	1995. 12월			1996.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4,952	△1.6	2.4	4,906	△14.8	△0.9	57,924	5.1
· 出 荷	4,906	△9.3	7.6	5,706	△11.0	3.5	60,503	6.9
(內 需)	4,830	△9.3	8.8	5,046	△11.0	4.5	59,709	7.4
(輸 出)	76	△10.6	△37.7	30	△14.3	△60.5	759	△24.4

◇ 섬 유

96년 12월중 국내 섬유산업은 年末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월에 이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재고 또한 줄어드는등 회복세가 이어졌다.

수출은 섬유사가 전년동월대비 △30.3%로 큰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어 섬유원료 및 직물, 섬유제품 등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1,507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화섬 직물류의 주수출시장인 홍콩과 미국, 일본, EU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감소한 반면, 국내 해외투자업체가 많이 진출한 중국, 베트남, 동구의 폴란드 등지에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늘어난 455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수입증가는 섬유원료 수입이 감소를 보인 것과는 달리 섬유계 및 섬유제품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다.

12월중의 회복양상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섬유산업의 수출은 주종품목인 섬유류의 중국, 홍콩시장에서의 수출부진 및 수출단가 하락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3.5% 감소한 178억달러 수준에 그쳐 90년대 들어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수출채산성이 크게 나빠졌다.

(주)선경인더스트리는 인도네시아 폴리에스터섬유 합작법인인 선경그리스에 18백만달러를 투자하여 日産 50톤 규모의 폴리에스터 F계 제조설비를 증설키로 하였다. 同社는 이번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日産 230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인도네시아 최대의 폴리에스터 생산업체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의 40%를 기록하고 있다.

◇ 조 선

96년 12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국적 LNG선의 계약체결과 전월에 이은 대형탱커의 수주호조에 힘입어 39척 2,476천G/T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34.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96년 총수주량도 144척 6,948천G/T으로서 전년대비 2.6% 감소하는데 그쳐 11월까지의 수주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였다. 12월중 건조실적은 업계의 생산성향상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3.4% 증가한 19척 878천G/T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96년 총 건조량도 전년대비 37.7% 증가한 7,798천G/T으로서 사상 최대수준을 보였다.

수주잔량은 12월중 수주가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월의 257척 11,441천G/T보다 14.8% 증가한 279척 13,085천G/T을 기록하였으나 아직 년초대비 5.4% 감소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일감 확보에는 미달상태이다.

최근 국내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수주강화를 위해 활발한 기술개발과 다각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LNG선 화물장착업에 사용되는 24종의 전용장비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주단계에서부터 경쟁력있는 가격 및 품질을 제시하기 위해 원가절감형 표준선 개발에 착수하였고, 삼성중공업도 세계 최대규모의 선박성능 실험장인 예인수조 및 공동수조시설을 완공하여 새로운 船型개발과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조 선 (千G/T, %)

	1995. 12월			1996.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 注	1,058	0.8	△39.9	2,476	261.5	134.2	6,948	△2.6
• 建 造	711	1.4	△30.4	878	41.5	23.4	7,798	37.7
• 受注殘量	13,833	1.7	11.3	13,085	14.8	△5.4	13,085	△5.4

현대중공업은 物流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개선팀과 물류업무 추진팀을 신설하여 1단계로 97년부터 공기단축을 위한 공정개선과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해 운

12월중 해운시황은 乾貨物중합운임지수 MRI가 파나마스형 및 케이프사이즈형의 용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의 252.1에서 257.0으로 1.9% 상승하였으나 탱커운임지수 WS는 대형유조선의 운임하락으로 전월의 63.2에서 2.4포인트 하락한 60.8을 기록하였다.

96년중 해운시장은 乾貨物市況이 年初부터 선복량 증가에 따른 공급초과로 침체가 지속되어 9월에 MRI가 180까지 하락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미국의 곡물출하 등으로 운임수준이 반등세를 보였으며, 탱커市況은 老朽선박의 해체추진과 신조의 준공량 정체 등으로 선복과잉이 크게 개선되어 상반기까지 꾸준한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유가상승과 용선주들의 활동둔화로 운임이 하락하였다.

최근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시황의 침체지속에 따른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영업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인수 및 해외 주요선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진해운은 Global Carrier 로의 도약을 위해 독일의 컨테이너船인 DSR-Scnator를 引受하여 유럽항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의 TRICON과의 전략적 제휴도 강화하여 기간항로와 연관한 신노선을 적극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조양선박도 선대대형화를 추진하여 기존 제휴업체인 DSR-Scnator社 등과 남미항로 및 호주항로의 영

업망을 강화하였다.

또한 不定期貨物과 카페리 운항에 주력해 왔던 한라해운사도 영업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2척을 확보하여 동남아로선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二. 대외 거래

◇ 수 출

96년중 수출은 주력품목인 반도체, 금속제품, 화공품 등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이 크게 부진한 데다 경공업제품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3.7% 증가한 1,297억 2천만달러에 그쳤다.

중화학공업제품은 자동차, 선박 등의 신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전자제품, 금속제품, 화공품 등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경공업제품은 종이류, 타이어·튜브 등이 계속 호조를 보였으나 의류와 신발류 등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97년 1월중 수출은 반도체가 12.2억 달러(전년동월비 44.2%)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도체 이외의 수출도 78.9억달러로 2.0%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91.1억달러(△ 8.2%)를 기록하였다.

금년 1월중 수출신용장(L/C)래도를 보면, 섬유류 14.4%, 신발류 24.1%, 타이어·튜브 26.2%등이 증가했으나, 철강 △15.0%, 전기전자 △25.0%, 자동차부품 32.0%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58.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수 입

96년중 수입은 소비재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데다 원자재와 자본재도 원유 및 첨단시설재 도입 증가로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임

品目別輸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5. 12		95. 1~12		96. 11p		96. 12p		96. 1~12p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消費財	2.8	17.4	29.8	16.0	2.8	△4.1	2.9	4.6	30.8	3.4
原料 및 燃料	4.4	17.7	48.2	28.5	6.6	69.0	6.4	46.7	63.4	31.4
輕工業製品	24.5	△1.3	293.5	14.0	25.6	5.9	27.2	11.0	315.6	7.5
纖維類	14.4	△6.7	172.6	5.6	13.8	2.5	14.1	△1.9	169.0	△2.1
신발類	0.9	△34.5	11.9	△19.7	0.6	△33.9	0.7	△23.3	8.6	△27.6
旅行用具	0.5	△13.5	6.8	△3.5	0.4	△25.6	0.4	△25.8	5.4	△20.7
重化學工業製品	86.0	13.0	879.1	37.5	79.0	△5.5	85.7	△0.3	887.4	0.9
化工品	6.0	9.9	71.9	46.6	6.0	1.1	6.2	4.8	70.7	△1.6
鐵鋼	7.6	△0.6	99.7	28.1	6.2	△26.2	6.8	△10.5	73.0	△26.8
機械	15.2	17.4	138.7	34.4	15.0	11.8	17.4	14.5	153.7	10.8
電子	25.2	29.6	262.2	44.3	21.9	△16.6	21.8	△13.6	244.2	△6.8
自動車	9.3	7.6	90.7	57.5	12.0	49.4	13.1	40.8	114.6	26.4
船舶	6.6	△25.7	55.3	11.9	5.6	△4.0	7.8	18.7	71.3	28.8
統計	117.6	9.9	1,250.6	30.3	114.0	△0.6	122.2	3.9	1,297.2	3.7

品目別輸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5. 12		95. 1~12		96. 11		96. 12		96. 1~12p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消費財	12.0	6.6	139.8	27.8	14.2	18.9	15.0	24.8	169.4	21.2
原資材	59.2	17.1	675.8	32.6	64.8	6.2	68.0	14.9	745.0	10.2
原油	9.6	△3.6	108.1	21.7	15.2	65.7	16.9	76.4	144.3	33.5
輕工業原料	5.6	8.3	67.5	27.5	5.0	△11.7	5.1	△8.6	61.1	△9.5
化工品	6.8	11.9	83.4	28.7	7.0	△3.1	6.9	2.0	86.0	3.1
鐵鋼材	6.1	48.0	67.3	42.9	5.0	△23.3	5.0	△18.1	67.6	0.5
資本財	46.8	5.9	535.6	32.5	54.5	19.2	52.9	13.1	589.0	10.0
機械	20.6	13.8	231.6	36.4	21.9	13.6	21.0	1.8	248.3	7.2
電氣·電子	17.2	12.5	195.2	35.6	19.2	12.5	19.1	11.4	213.9	9.6
輸送裝備	3.8	△40.9	47.3	15.8	6.8	55.2	6.9	82.6	54.2	14.5
內需用	81.5	11.5	905.2	29.5	90.0	12.3	95.1	16.8	1,017.1	12.4
輸出用	36.6	10.9	446.0	37.5	43.6	12.9	40.8	11.6	486.3	9.0
總計	118.1	11.3	1,351.2	32.0	133.6	12.5	136.0	15.2	1,503.4	11.3

에 따라 전년대비 11.3% 증가한 1,503억 4천만달러를 나타냈다.

자본재(10.0%)는 수송장비(14.5%)를 제

외한 기계류(7.2%), 전기전자(9.6%)등 대부분의 품목이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원자재(10.2%)는 원유도입(33.5%)이 국제가격상

승으로 늘어난 반면 경공업원료(△9.5%)등이 국제시세의 안정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화학제품(3.1%), 철강재(0.5%)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식료 및 소비재(21.2%)와 내구재수입(12.6%)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곡물이 국제가격 상승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내구소비재(33.3%)도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수요 고급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97년 1월중 수입은 원자재인 원유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化工品·섬유류 등의 수입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자본재는 반도체·전자부품 등이 크게 증가했으나 기계류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소비재는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의류·신발류와 소비수요고급화에 따른 가구류·화장품 등의 지속적인 수입증가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국제수지

96년 1~11월중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수출부진 및 수입증가세 지속으로 크게 악화된데다 무역외 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여 적자폭이 전년동기의 △86.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216.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전자제품,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부진한 반면, 수입은 소비재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기의 △49억 2천만달러보다 크게 악화된 140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외수지는 무역외수입이 여행수입 및 기타 운수수입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무역외지급이 기술도입료와 여행경비

를 중심으로 비교적 크게 늘어나 68.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32.2억달러보다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전수지는 7.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전년동기의 △4.6억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96년 1~11월중 자본수지는 자본유출이 중금사의 단기자산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자본도입이 외국인 주식투자, 해외 증권발행 등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도입규모가 전년동기비 116.0억달러에서 149.6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자본도입은 외국인 주식투자, 외화증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무역관련 신용도입도 원유단기차입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의 179.7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233.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본유출은 중금사 단기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무역관련 신용공여와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의 63.8억달러보다 확대된 8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6년 1~11월중 자본수지는 149.6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어 전년동기의 116.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결국 96년 1~11월중의 종합수지는 전년동기의 24억7천만달러 흑자보다 크게 늘어난 57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 제 수 지 (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96.1~11p	96.1~11p
經常收支	△87.3	△45.3	3.8	△45.3	△89.5	△216.4	△86.0
貿易	△104.4	△53.5	△15.2	△71.6	△100.9	△140.6	△49.2
貿易外	△16.0	△26.1	△19.7	△19.9	△36.4	△68.0	△32.2
移轉	△1.5	2.3	4.9	6.0	△5.6	△7.7	△4.6
長期資本收支	41.9	72.3	89.0	58.6	125.1	104.7	65.9
短期資本收支	0.4	11.1	△20.2	31.6	55.9	44.8	50.1
綜合收支	△37.4	49.0	65.4	28.2	30.3	△57.4	24.7